

온라인 게임은 불황의 영향을 적게 받는 비즈니스 모델

# **JOGA 온라인게임**

## **시장조사 리포트 2009**



일반사단법인 일본온라인게임협회

2009년 7월 13일 발행

## 시장 조사 및 조사 대상

본 시장조사는 일본의 온라인게임시장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게임 포럼(수도권정보벤처 포럼)에서 실시해 온 시장통계조사를 일본온라인게임협회(이하, JOGA)가 인계 받아 실시,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2004년 조사 이후 5번째 조사에 해당된다.

본 조사에서 말하는 온라인게임이란 통신 인프라를 매개체로, 컴퓨터(이하, PC)나 거치형태의 가정용게임기(이하, 콘솔게임기)로 여러 명의 플레이어가 동시에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으로 폭넓은 개념으로 다루기로 한다.

이 중 본 조사에서는 게임 운영 서비스 및 클라이언트(패키지)소프트웨어 판매 등을 통해 매출을 내고 있는 타이틀 및 오픈  $\beta$  타이틀을 대상으로 하였다.

온라인게임은 게임시스템 분류 상 MMO(다수 동시 플레이), MO(소수 동시 플레이), Matching(1대 1 플레이/IP 접속) 타이틀이며, 카테고리 분류 상, MMO 게임(다수 동시플레이형 RPG 등 비교적 장시간 동안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 캐주얼게임(소수 동시 플레이 형 테이블 게임, 스포츠게임 등 비교적 단시간 동안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 기타(Matching 시스템 게임이나 커뮤니티성이 높은 게임) 등의 타이틀이다.

또한 게임 포털 사이트의 경우 아바타와 게임이 연동되어 복수의 타이틀이 서비스 되고, 사이트 내에서 해당 서비스를 공통된 게임 머니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포털을 1 포털로 간주하며, 여기에서 서비스 되는 MMO 게임, 캐주얼게임 등은 개개의 게임타이틀로 간주한다.

또한 커뮤니티 서비스가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며, 해당 서비스의 일환으로 게임을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의 경우, 온라인게임을 주체로 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 것으로 판단, 본 조사에서는 온라인게임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편 네트워크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게임기, 휴대전화에서 사용 가능한 게임타이틀은, 유저가 네트워크에 접속할 목적으로 콘텐츠를 다운로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여러 명의 플레이어가 동시에 같은 게임을 플레이 하는 온라인게임의 정의와는 상반되는 바, 본 조사에서는 온라인게임 카테고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단 휴대전화 게임 타이틀 중 MO 타이틀이 등장하고 있어, 향후 하드웨어와 통신속도의 성능이 향상될 것이므로, 향후 본 조사 대상인 온라인 게임 카테고리에 편입되는 것은 시간 문제로 여겨진다.

## 시장조사 요건 및 방법

본 조사는 사업자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서비스로 플레이어에게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게임 타이틀(오픈  $\beta$  이상)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이며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WEB 조사

2003년부터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는 온라인게임 타이틀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2008년 12월 31일 시점에서, 무료·유료를 불문하고 서비스되고 있는 온라인게임 타이틀을 WEB 사이트상에서 확인해 보았다. 그 중에서 앞에서 서술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선택하고, 서비스 타이틀 및 온라인게임서비스 운영사업자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또한 보조적으로는 각 업체가 제공하는 외부공표 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 (2) 설문조사 및 의견청취 조사

(1)의 WEB 조사에서 확인된 온라인게임 서비스사업자 중에, JOGA 회원기업을 중심으로 온라인게임 서비스사업자, 패키지게임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자 및 패키지게임 소프트웨어 유통사업자에 대해 설문조사 및 의견청취 조사를 의뢰하여, 협조해준 29 사업자에게 2009년 1월부터 3월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다. 덧붙여 5사업자가 공표한 IR 관련 정보를 입수하였다.

설문조사 및 의견청취조사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대로 개개의 조사항목에 대해 데이터를 취득이 5사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데이터를 조사결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참고로 본 조사 실시 사업자가 사업자 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6%로, 또한 전체 유저 수(유저가 특정온라인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 로그인할 수 있는 권리)수의 75.5%였다.

또한 주식회사 게임에이지 종합연구소의 협력을 얻어, 온라인게임 유저의 동향을 조사하였다.

‘7. 온라인게임 유저에 관한 조사’가 이에 해당되며 조사방법은 아래와 같다.

#### ■ 유치조사 + 인터넷에 의한 WEB 리서치

WEB 리서치를 통해 대규모로 샘플을 채취하고 사회성이 있는 자기기입식 조사를 통해 산출한 확대집계 변수를 대입시킴으로써 대량 샘플인 WEB 리서치를 실 유저 수에 준한 집계로 변환하는 시스템을 채택하였다.

#### ■ 유효답변 샘플 수:

- 자기 기입식 조사\_2,400
- WEB 조사\_P C 유저\_16,099
- WEB 조사\_휴대전화 게임 유저\_11,642

분석 시 상기 PC 와 휴대전화의 각 유저 샘플을 사회조사를 통해 얻은 모(母)집단 사이즈 (추후 설명)로 확대하여 집계함

■ 조사대상자: 10 세 이상의 일반 생활자

■ 조사기간: 2009 년 6 월 9 일 ~ 2009 년 6 월 16 일

또한 본 조사 보고서에서는 온라인 게임 유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로 한다.

온라인 게임 유저: 대상의 하드웨어에서 과금 유무를 불문하고 온라인 게임 플레이를 하는 사람. 본 보고서의 경우 PC 온라인 게임 유저와 휴대전화 게임 유저에 주안점을 둔 조사를 실시했다.

# JOGA 온라인게임시장조사 리포트 2009

1. 온라인게임 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	6
(1) 온라인게임 서비스사업자 수의 추이 .....	6
(2) 온라인게임 서비스사업자의 소재지별 분류와 추이.....	7
(3) 온라인게임 서비스사업자의 자본금 규모 분류와 추이 .....	8
(4) 온라인게임 서비스사업자의 종업원 수 분류와 추이.....	9
2. 온라인게임 타이틀에 대해서 .....	11
(1) 서비스 타이틀의 분류와 추이 .....	11
(2) 서비스 종료 타이틀의 추이(PC 게임).....	12
(3) 서비스 타이틀의 하드웨어별 분류와 추이 .....	13
(4) 서비스타이틀의 장르별 분류와 추이 .....	15
(5) 서비스타이틀의 장르별 분류와 추이 (PC게임).....	16
(6) 서비스타이틀의 카테고리별 분류와 추이 (PC 게임).....	18
(7) 서비스타이틀의 카테고리·국가별 분류와 추이 (PC 게임).....	19
(8) 서비스 타이틀의 라이선서 국가별 분류와 추이 .....	22
(9) 서비스 타이틀의 라이선서 국가별 분류와 추이(PC 게임).....	24
3. 온라인게임 비즈니스모델에 대해서.....	27
(1) 서비스타이틀의 비즈니스모델 분류와 추이 .....	27
(2) 서비스타이틀의 비즈니스 모델 분류와 추이(PC 게임).....	28
(3) 게임유저 1인당 월평균 매출과 추이 .....	30
5. 온라인게임 유저에 대해서 .....	31
(1) 게임 유저의 남녀 구성비 .....	31
(2) 오픈β 타이틀 유저의 프로필 (연령분포).....	31
(3) 과금 타이틀 유저의 프로필(연령 분포).....	33
6. 온라인게임 시장에 대해서 .....	35
(1) 게임유저 어카운트 수와 추이 .....	35
(2) 게임시장규모와 추이.....	36
(3) 게임규모와 추이(패키지 매출과 게임서비스 매출).....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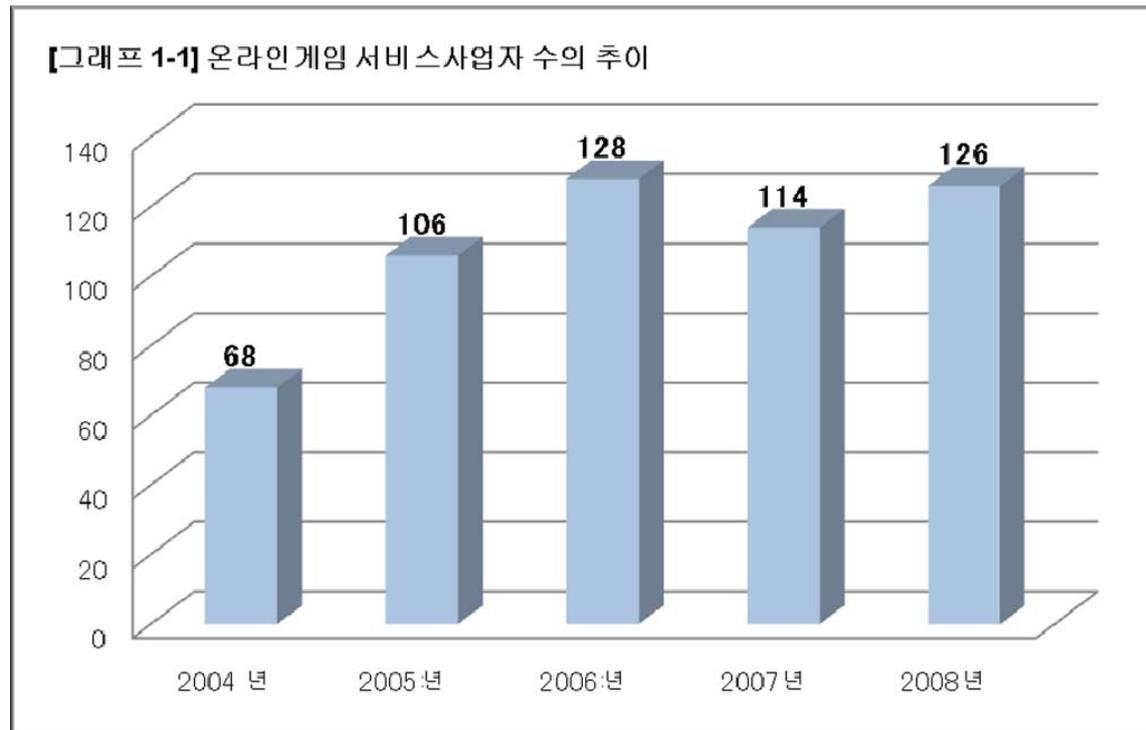
# 1. 온라인게임 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

## (1) 온라인게임 서비스사업자 수의 추이

[표 1-1] 온라인게임 서비스 사업자의 추이

(단위: 업체)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합계	68	106	128	114	126



온라인게임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벤처기업, IT 관련 기업, 콘솔게임 업체, 한국의 온라인게임 회사의 일본법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온라인 시장은 2004년부터 시장이 성장기에 들어섰다. 이에 따라 온라인 게임서비스 사업자는 2004년 68사, 2005년 106사(전년도대비 156%), 2006년 128사(전년도대비 121%)로 증가되는 경향이였다. 그러나 2007년 114사(전년도대비 89%)가 되어 전년 대비 감소했다. 기업의 양극화가 시작되어 높은 매출을 달성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격차가 확산되고 있으나 이러한 추세는 2008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2008년에는 콘솔게임업체의 신규 진출에 힘입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 중에서 온라인 게임 전문 업체는 전체의 32%를 차지한다.

## (2) 온라인게임 서비스사업자의 소재지별 분류와 추이

[표 1-2] 온라인게임 서비스사업자의 소재지별 분류 (단위: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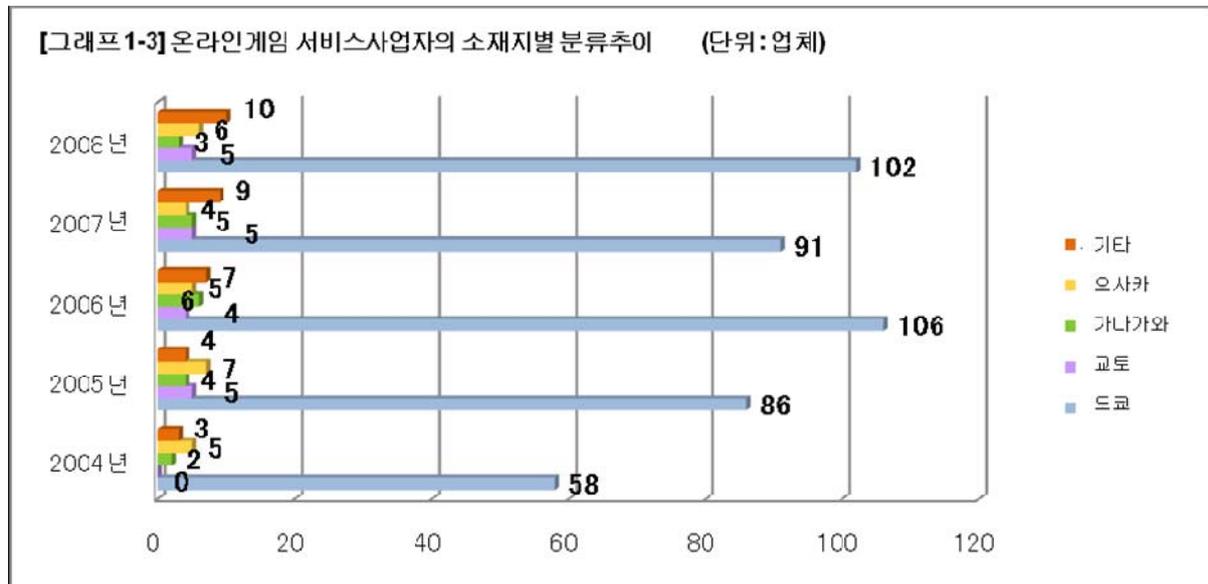
	2008 년
도쿄	102
교토	5
가나가와	3
오사카	6
기타	10
합계	126

[표 1-3] 온라인게임 서비스사업자의 소재지별 분류추이

(단위: 업체)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도쿄	58	86	106	91	102
교토	0	5	4	5	5
가나가와	2	4	6	5	3
오사카	5	7	5	4	6
기타	3	4	7	9	10
합계	68	106	128	114	126

※ 2004 년 데이터는 도부현(道府県)의 비율만 공개



국내의 IT 및 콘텐츠 관련기업의 대부분은 도쿄에 소재하고 있으나, 온라인게임도 마찬가지로 도쿄 집중형 비즈니스이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도쿄의 비율은 2004년에는 85%였지만, 2007년에는 81%가 되었다.

### (3) 온라인게임 서비스사업자의 자본금 규모 분류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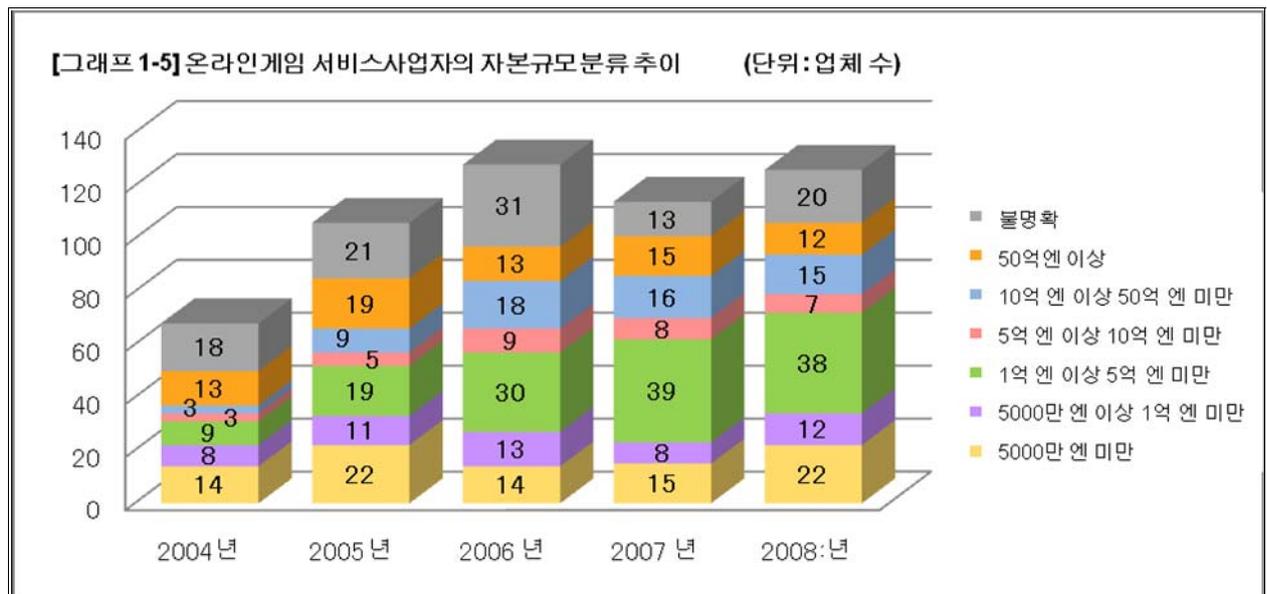
[표 1-4] 온라인게임 서비스사업자의 자본규모 분류 (단위: 업체)

	2008 년
5000 만 엔 미만	22
5000 만 엔 이상 1 억 엔 미만	12
1 억 엔 이상 5 억 엔 미만	38
5 억 엔 이상 10 억 엔 미만	7
10 억 엔 이상 50 억 엔 미만	15
50 억 엔 이상	12
불명확	20
합계	126

[표 1-5] 온라인게임 서비스사업자의 자본규모 분류추이

(단위: 업체)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5000 만 엔 미만	14	22	14	15	22
5000 만 엔 이상 미만	8	11	13	8	12
1 억 엔 이상 5 억 엔 미만	9	19	30	39	38
5 억 엔 이상 10 억 엔 미만	3	5	9	8	7
10 억 엔 이상 50 억 엔 미만	3	9	18	16	15
50 억 엔 이상	13	19	13	15	12
불명확	18	21	31	13	20
합계	68	106	128	114	126



온라인게임 서비스사업자를 자본금의 규모로 살펴보면, 1 억 엔 미만의 사업자가 2004년에는 전체의 32%였다. 그러나 해마다 그 비율은 감소하여 2008년에는 27%가 되었다.

PC 온라인게임 전업업체는 모두 벤처 기업이므로 소자본으로 시작하여 점차 사업 규모를 확대, 자본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렇다고는 하나 기타 콘텐츠 비즈니스에 비해 콘텐츠 파워와 운영 서비스 능력만 있다면 아직 벤처 기업이 참여할 여지는 남아 있다.

한편 자본금 10 억엔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2005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나 그 대부분이 콘솔게임 업체이다. 이러한 업체는 전체 중 21%를 차지하고 있다.

#### (4) 온라인게임 서비스사업자의 종업원 수 분류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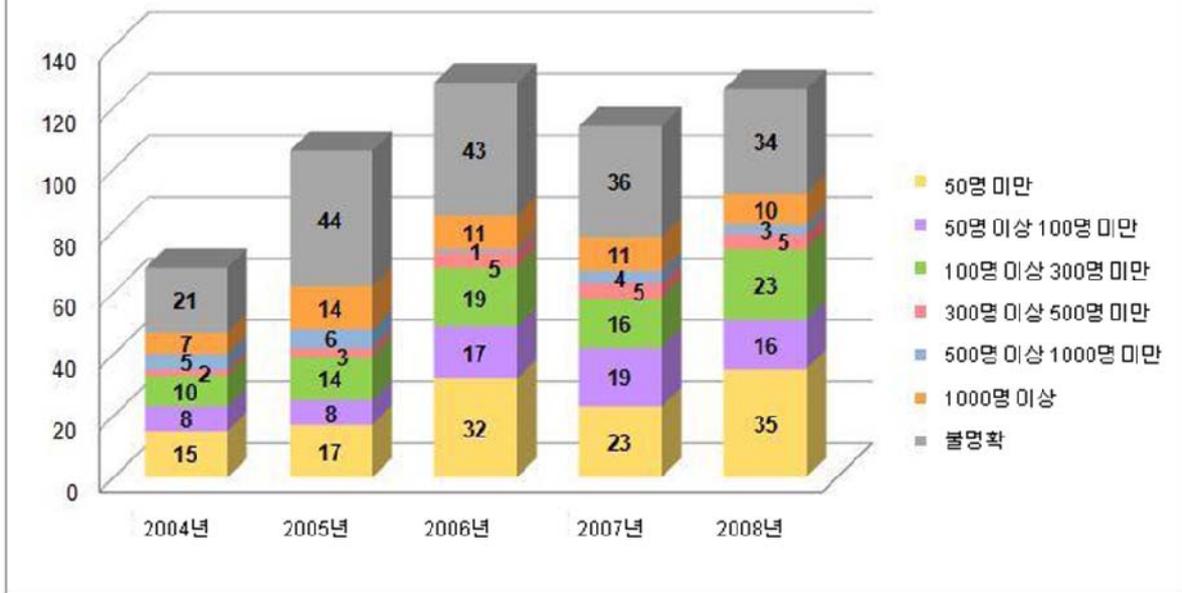
[표 1-6] 온라인게임 서비스사업자의 종업원 수별 분류 (단위: 업체)

	2008년
50명 미만	35
50명 이상 100명 미만	16
100명 이상 300명 미만	23
300명 이상 500명 미만	5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3
1000명 이상	10
불명	34
합계	126

[표 1-7] 온라인게임 서비스사업자의 종업원 수별 분류 추이 (단위: 업체)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50명 미만	15	17	32	23	35
50명 이상 100명 미만	8	8	17	19	16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0	14	19	16	23
300명 이상 500명 미만	2	3	5	5	5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5	6	1	4	3
1000명 이상	7	14	11	11	10
불명확	21	44	43	36	34
합계	68	106	128	114	126

[그래프 1-7] 온라인게임 서비스사업자의 종업원 수 별 분류 (단위:업체)



온라인게임 서비스사업자를 종업원 수로 살펴보면, 2004 년에 34%, 2008 년에 40%가 종업원 수 100 명 미만의 중소 벤처기업(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름)이다. 그 중 가장 많은 것이 50 명 미만 업체이다.

기존의 제조업과 특성이 유사한 패키지 콘텐츠 비즈니스와 달리 온라인게임은 인터넷 비즈니스이므로 제조부터 판매까지 일관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종업원수는 적은 추세다.

## 2. 온라인게임 타이틀에 대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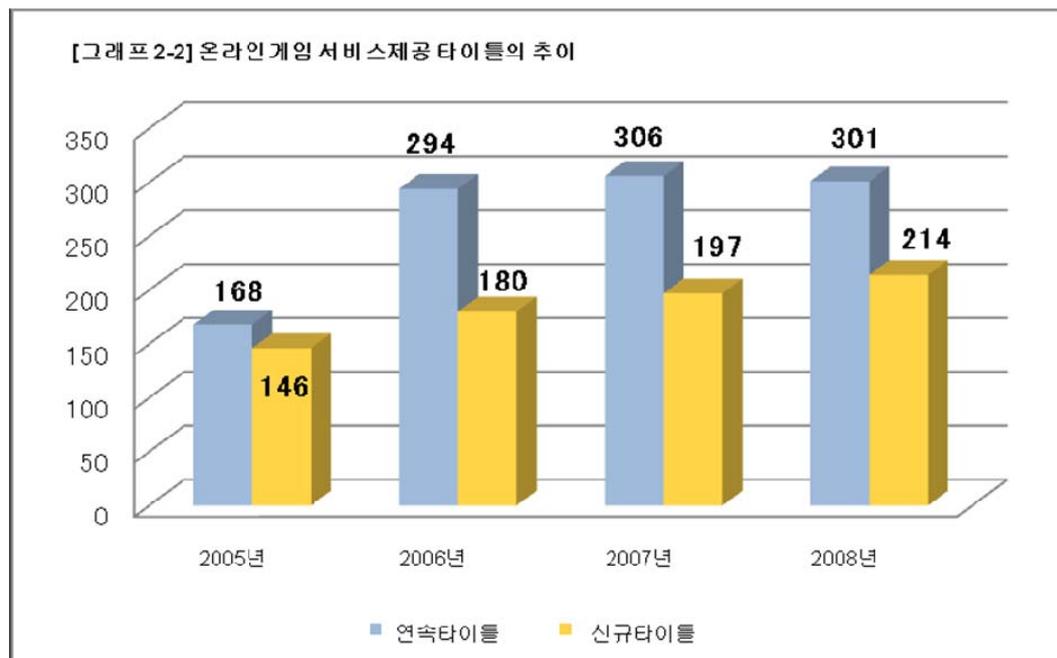
### (1) 서비스 타이틀의 분류와 추이

[표 2-1]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 타이틀

	2008 년
연속타이틀	301
신규타이틀	214
합계	515

[표 2-2] 온라인게임 서비스제공 타이틀의 추이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연속타이틀	168	294	306	301
신규타이틀	146	180	197	214
합계	314	474	503	515



일본 국내에서 서비스 된 게임타이틀 추이는 2004 년부터 2005 년에 걸쳐 168%, 2005 년부터 2006 년에 걸쳐 151%, 2006 년부터 2007 년에 걸쳐 106%로 항상 증가 경향이다.

또한, 서비스 타이틀 중에, 신규 서비스 타이틀의 비율은 2005 년에 46%, 2006 년에 38%, 2007 년에 39%, 2008 년 48%로 대체적으로 매년 40%내외로 추이된다.

2008 년 온라인게임 및 해당 신규 타이틀이 증가한 것은 주로 콘솔 게임 타이틀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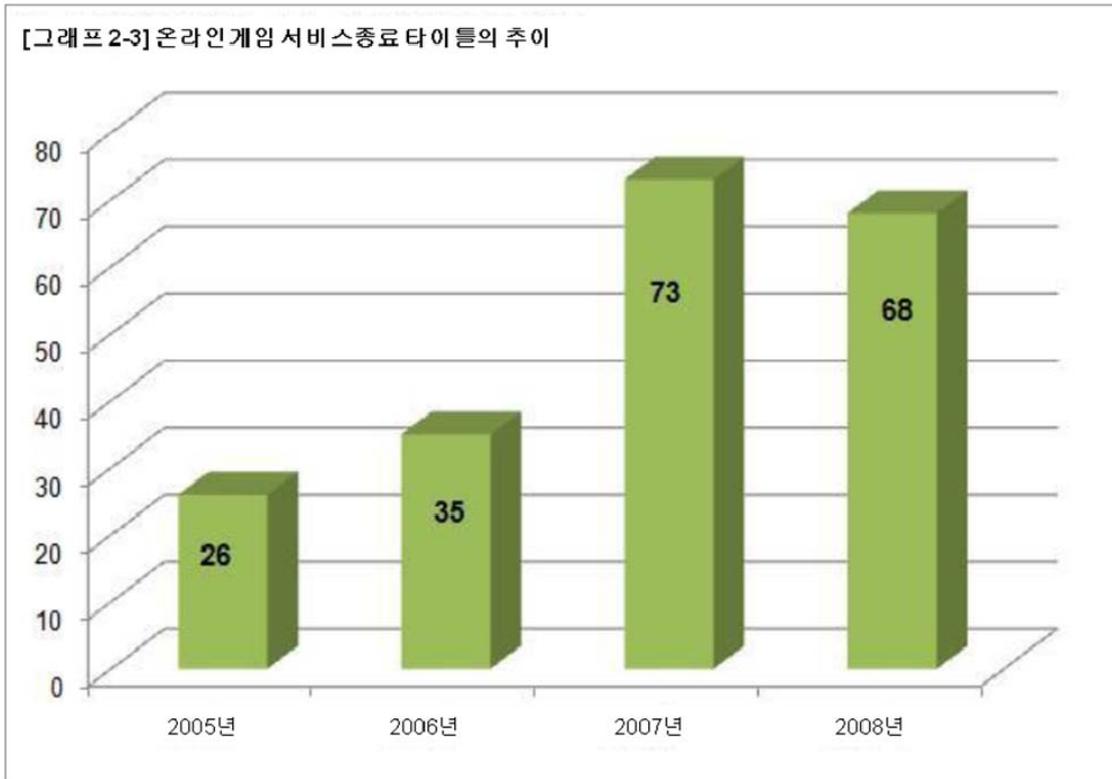
## (2) 서비스 종료 타이틀의 추이(PC 게임)

[표 2-3] 온라인게임 서비스종료 타이틀의 추이(PC 게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종료 타이틀	26	35	73	68

[표 2-4] 2008년에 서비스 종료된 종류별 타이틀

내역	MMO&MO	IP 접속	포털	합계
종료 타이틀	31	37	0	68



일본국내에서 서비스가 종료된 PC 게임 타이틀의 추이는, 2005년부터 2007년 동안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에 있으나, 종료된 타이틀의 증가율은 2005년부터 2006년에 걸쳐 135%, 2006년부터 2007년에 걸쳐 209%, 2008년에는 전년 대비 93%이나 68개 타이틀이 종료되었다. 2007년에 서비스 종료된 타이틀의 대부분은 소수(小數) 동시 플레이형 캐주얼 게임이었으나 2008년 종료된 타이틀의 대부분은 패키지 판매형 PC 게임이다. 그 이유로는 PC 온라인게임=무료 다운로드 제공형 모델이 유저들에게 정착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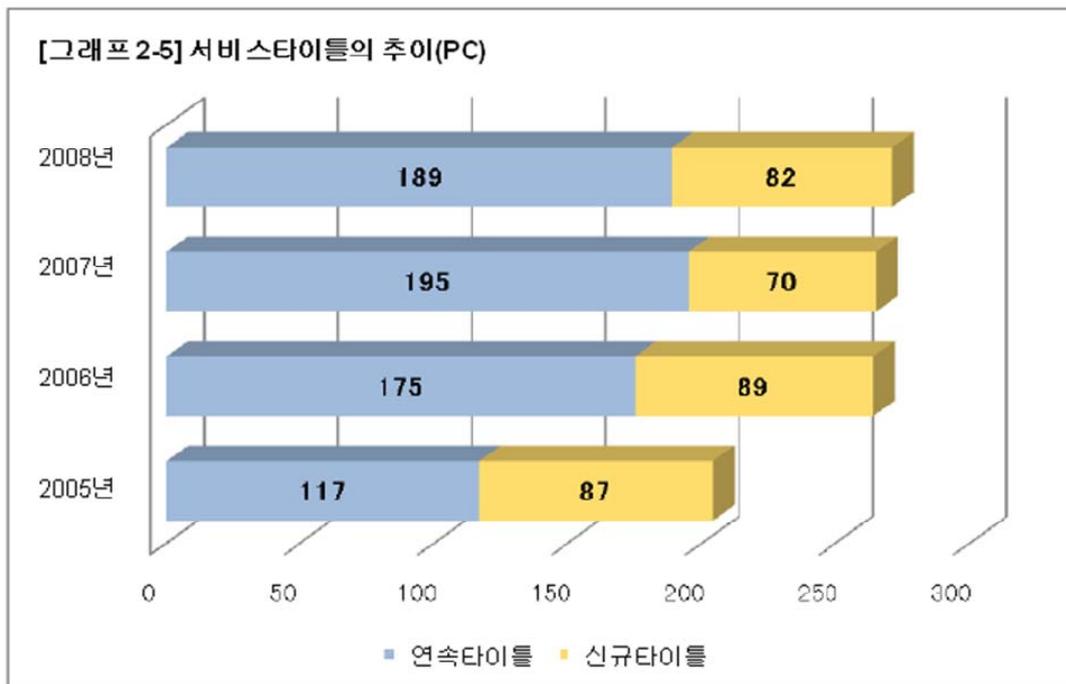
### (3) 서비스 타이틀의 하드웨어별 분류와 추이

[표 2-5]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 타이틀(PC)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연속 타이틀	117	175	195	<b>189</b>
신규 타이틀	87	89	70	<b>82</b>
합계	204	264	265	<b>271</b>

[표 2-6] 온라인 게임 서비스 타이틀의 종류별(PC)

	MMO&MO	IP 접속	포털	합계
2008년 연속 타이틀	165	16	8	<b>189</b>
2008년 신규 타이틀	52	30	0	<b>82</b>
합계	217	46	8	<b>271</b>



일본국내에서 서비스된 PC 게임 타이틀의 추이는 2004년부터 2005년에 걸쳐 173%, 2005년부터 2006년에 걸쳐 129%가 되었으나, 2006년부터 2007년에 걸쳐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2007년부터 2008년에 걸쳐 다시 102%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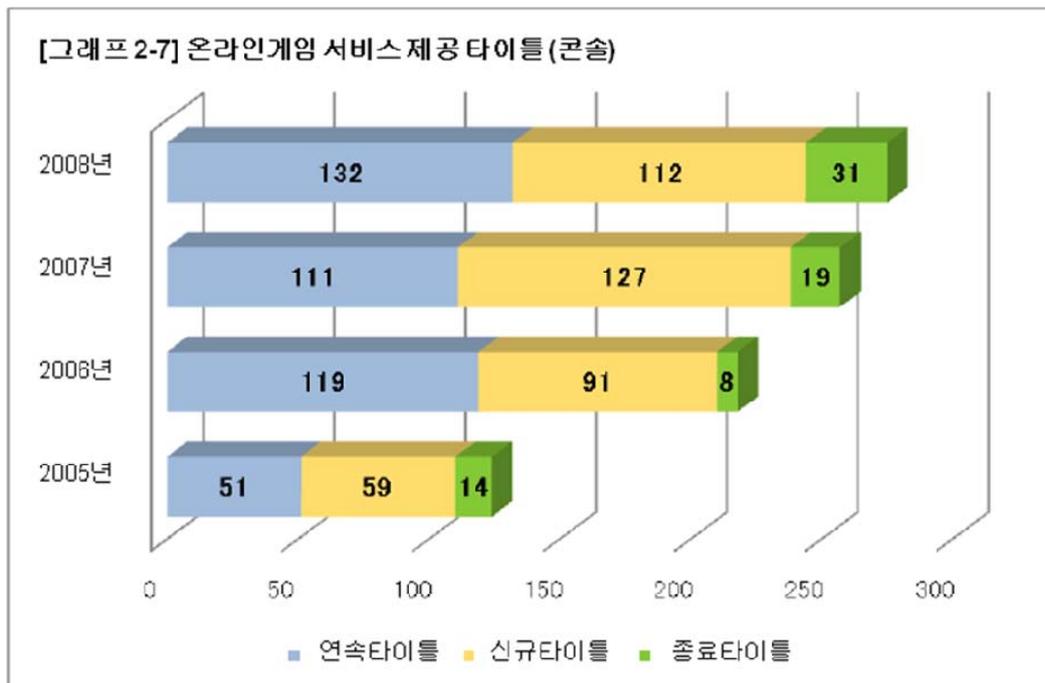
시장 조사 전년 또는 그 이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연속타이틀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57%, 2006년 66%, 2007년 74%로, 해마다 증가해 왔으나 2008년에는 다소 감소했다.

바뀌 말하면 신규타이틀 비율이 2008년에는 전년대비 많았다는 것이며 2007년부터 계속 신규와 기존타이틀의 교체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타이틀 종류별로 살펴보면 MMO&MO 타이틀이 전체 80%를 차지하고 있다. 패키지 판매의 온라인모드를 탑재한 PC 게임은 판매가 부진할 경우 서비스가 중단되나 패키지 판매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 정체기미를 보이고 있어 그 영향으로 인해 연속타이틀이 감소했다.

[표 2-7] 온라인게임 서비스제공 타이틀의 추이 (콘솔)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연속 타이틀	51	119	111	132
신규 타이틀	59	91	127	112
종료 타이틀	14	8	19	31
합계	110	210	238	244



Xbox360, 플레이스테이션 3 타이틀은 증가추세에 있다. 한편 플레이스테이션 2의 타이틀은 서비스 중단 등으로 감소경향을 보인다. 콘솔게임타이틀의 경우, 신규타이틀도 많지만 서비스 기간이 PC 게임에 비해 짧기 때문에 향후 종료 타이틀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4) 서비스타이틀의 장르별 분류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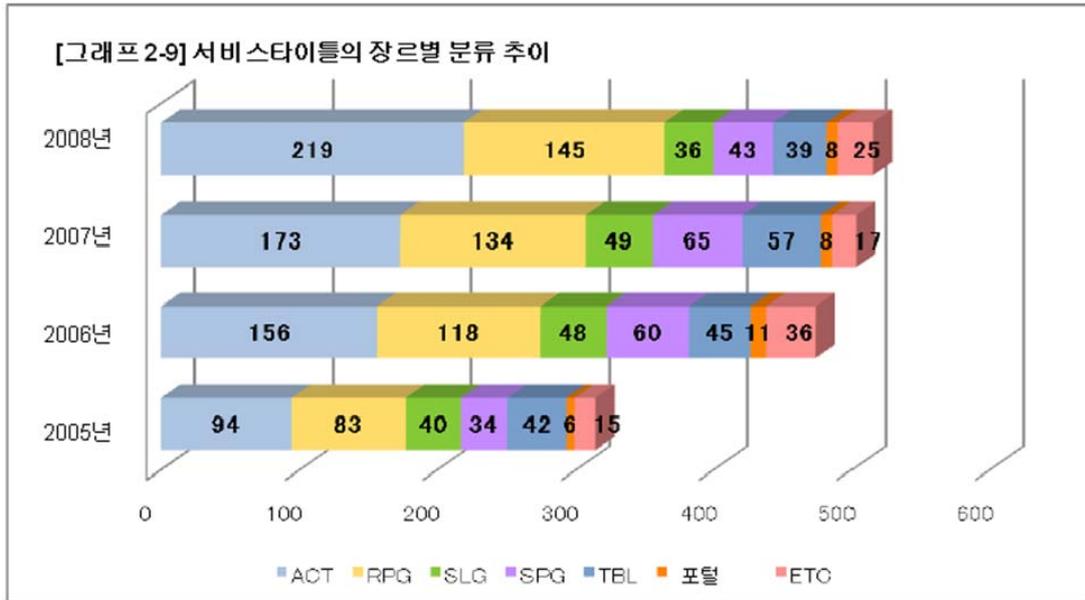
[표 2-8]서비스타이틀의 장르별 분류

2008년 서비스제공 타이틀			
	2008년 연속	2008년 신규	
ACT	92	127	219
RPG	112	33	145
SLG	18	18	36
SPG	35	8	43
TBL	23	16	39
포털	8	0	8
ETC	13	12	25
합계	301	197	515

[표 2-9]서비스타이틀의 장르별 분류 추이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ACT	94	156	173	219
RPG	83	118	134	145
SLG	40	48	49	36
SPG	34	60	65	43
TBL	42	45	57	39
포털	6	11	8	8
ETC	15	36	17	25
합계	314	474	503	515

※ ACT(액션게임/플레이어가 인간, 동물, 로봇 등의 캐릭터를 조작하여 적이나 라이벌 등과 싸우면서 엔딩을 맞이하는 게임, 또는 대련이나 경쟁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게임), RPG(롤 플레이 게임/플레이어가 자신의 캐릭터를 조작하여 동료와 협력하면서 주어진 모험이나 과제, 탐험, 전투 등을 거쳐 목적을 달성하는 게임), SLG(시뮬레이션게임/ 전쟁, 비행기조종, 회사경영 등의 현실 유사체형 또는 역사상의 픽션 유사체형을 할 수 있는 게임), SPG(스포츠게임/야구, 축구, 카레이싱 등 현실의 스포츠를 유사체형하는 게임), TBL(테이블 게임/실제 테이블 위에서 진행되는 마작이나 카드와 같은 대전을 인터넷 상에서 플레이하는 게임), 포털(게임포털사이트/아바타와 게임이 연동된 복수의 타이틀이 서비스되며 이들 서비스가 사이트 내 공통 게임머니로 이용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전용 포털 사이트), ETC(기타/상기 장르에 포함되지 않는 카테고리 게임)



일본국내에서 서비스된 게임타이틀의 장르 추이는, 콘솔게임의 온라인 호환 타이틀에 액션게임이 많기 때문에, 해당 장르 타이틀의 경우 2005년부터 2008년에 걸쳐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과 2008년을 비교하면 233%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RPG 타이틀의 대부분은 PC 타이틀로, 오히려 콘솔게임에는 적은 장르에 해당된다. RPG 타이틀은 2005년부터 2006년에 걸쳐 142%, 2006년부터 2007년에 걸쳐 136% 각각 증가하였다. 또한 2005년과 2008년을 비교하면 175%의 증가율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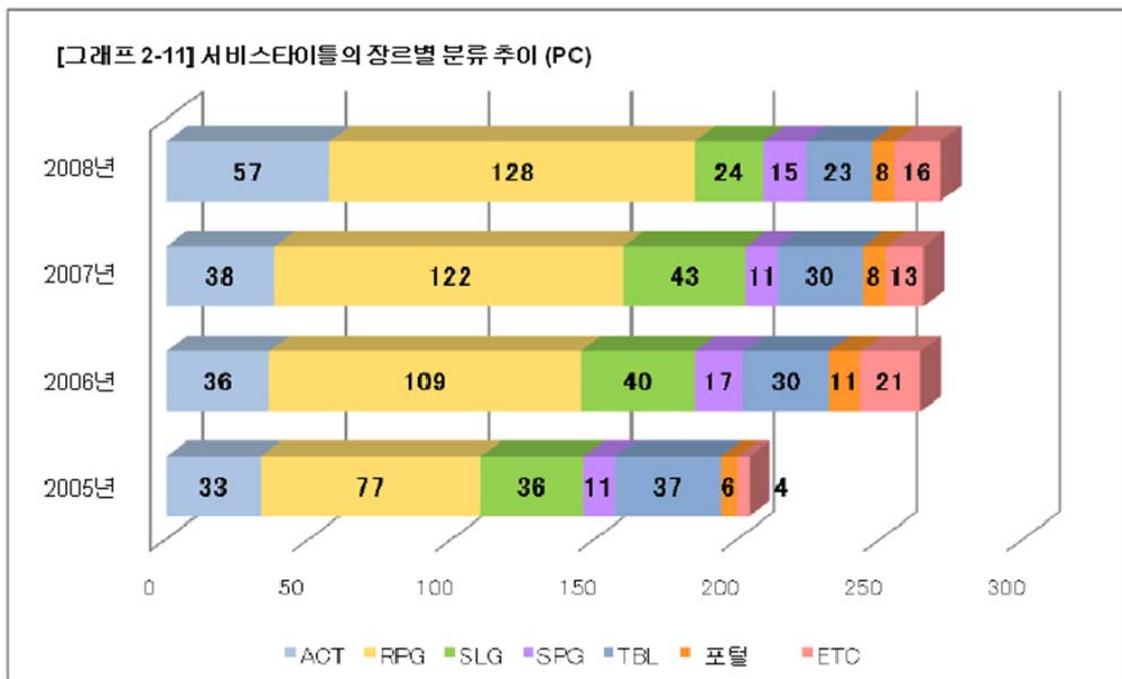
## (5) 서비스타이틀의 장르별 분류와 추이 (PC 게임)

[표 2-10] 서비스타이틀의 장르별 분류 (PC)

	2008년 서비스제공 타이틀		
	2008년 연속	2008년 신규	
ACT	29	28	57
RPG	101	27	128
SLG	14	10	24
SPG	12	3	15
TBL	15	8	23
포털	8	0	8
ETC	10	6	16
합계	189	82	271

[표 2-11] 장르별 분류 추이 (PC)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ACT	33	36	38	57
RPG	77	109	122	128
SLG	36	40	43	24
SPG	11	17	11	15
TBL	37	30	30	23
포털	6	11	8	8
ETC	4	21	13	16
합계	204	264	265	271



PC 게임 중 RPG 타이틀은 조사를 시작한 2005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5년과 2008년을 비교하면 166% 증가. 2007년과 2008년을 비교하면 105% 증가를 보였으며 PC 온라인 게임 타이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47%였다. 또한 2008년에는 PC 게임에서도 액션게임이 증가하고 있으며 참고로 전년대비 150%, 그 중 슈팅계열 타이틀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 (6) 서비스타이틀의 카테고리별 분류와 추이 (PC 게임)

[표 2-12] 카테고리별 분류(P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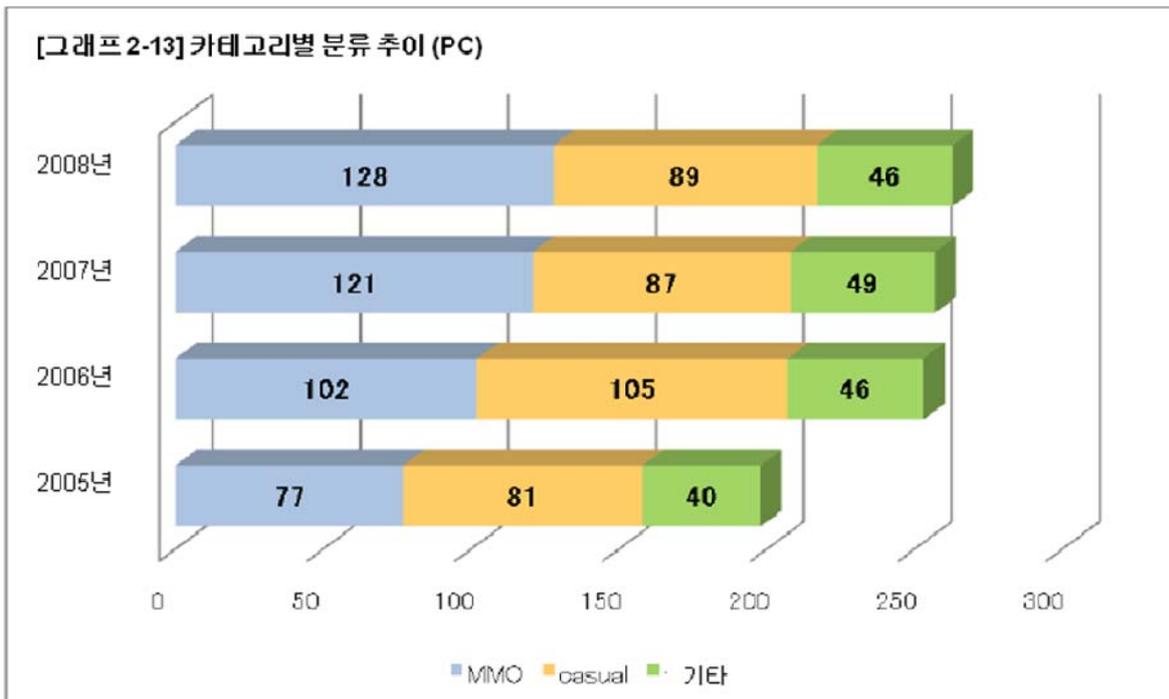
2008 년	
MMO	128
캐주얼	89
기타	46
합계	263

※ 포털사이트 8 타이틀 제외

[표 2-13] 카테고리별 분류 추이(PC)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MMO	77	102	121	128
캐주얼	81	105	87	89
기타	40	46	49	46
합계	198	253	257	263

※ 포털사이트 타이틀 제외



다수(多數)동시접속형 MMO 게임타이틀은 2005 년부터 2006 년에 걸쳐 132%, 2006 년부터 2007 년에 걸쳐 119%, 2007 년부터 2008 년에 걸쳐 108%로 안정적인 증가세에 있다. MMO 게임이 증가하는 이유는 타이틀의 특징상 유저수를 확보하기 쉬우며 가상 게임공간 이용 상의 유저 자유도가 높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캐주얼 게임타이틀은 2005 년부터 2006 년에 걸쳐 130%로 증

가하였지만, 2006년부터 2007년에 걸쳐 83%로 감소, 2007년부터 2008년에는 다시 102%로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다. 둘 이상의 유저를 인터넷 상에서 매칭시켜 대진하게 하는 타입 등의 기타 타이틀은 콘솔게임 타이틀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PC 게임에서는 전체의 17%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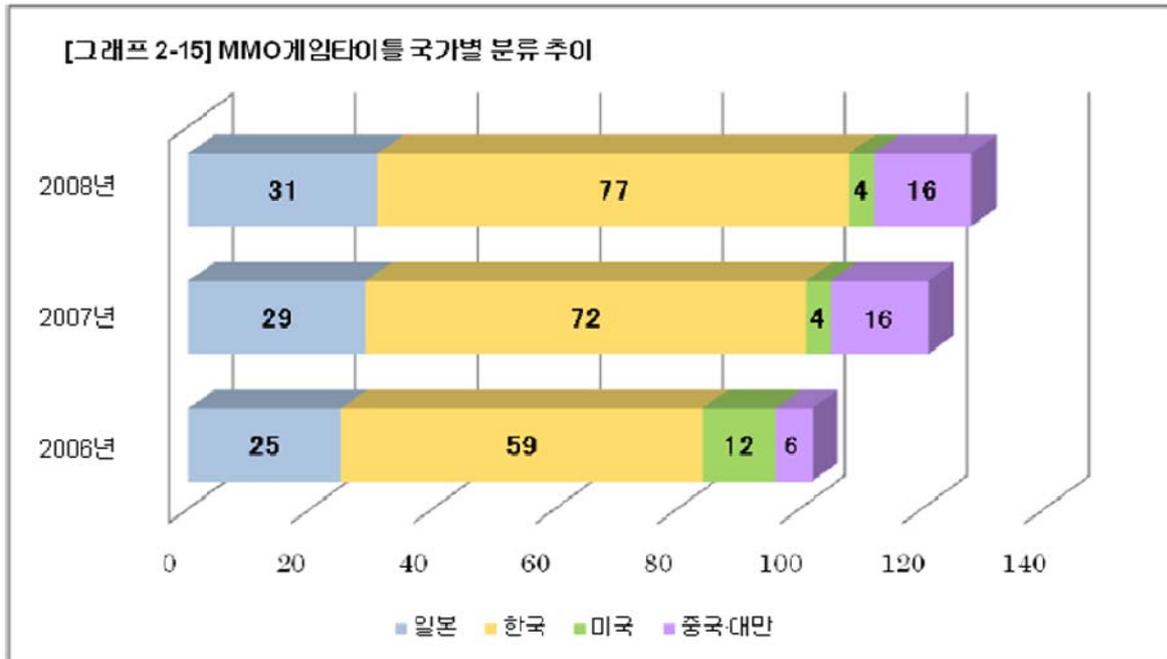
## (7) 서비스타이틀의 카테고리·국가별 분류와 추이 (PC 게임)

[표 2-14] MMO 게임타이틀 국가별 분류

	2008년 서비스제공 타이틀		
	2008년 연속	2008년 신규	
일본	9	22	31
한국	18	59	77
미국	1	3	4
중국·대만	4	12	16
유럽	0	0	0
합계	31	89	128

[표 2-15] MMO 게임타이틀 국가별 분류추이

	2006년	2007년	2008년
일본	25	29	31
한국	59	72	77
미국	12	4	4
중국·대만	6	16	16
유럽	-	0	0
합계	102	121	128



2007년에 서비스된 MMO 게임 타이틀은, 한국 타이틀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국산 타이틀은 24%였다. 2008년에도 이 비율에는 변함이 없다. 일본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MMO 타이틀은 변함없이 반 이상이 한국 타이틀이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 타이틀은 대만 타이틀이라도 중국에서 일부 또는 대부분 개발된 것이므로 동일한 카테고리 취급하였다. 단 일본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타이틀의 대부분은 대만 타이틀이다.

한편 미국 타이틀은 2007년 4 타이틀 감소했으나 2008년에도 동일한 타이틀이 서비스되고 있다. 중국 타이틀의 경우 1년 이내에 서비스가 종료되는 타이틀도 있기 때문에 연속타이틀 수가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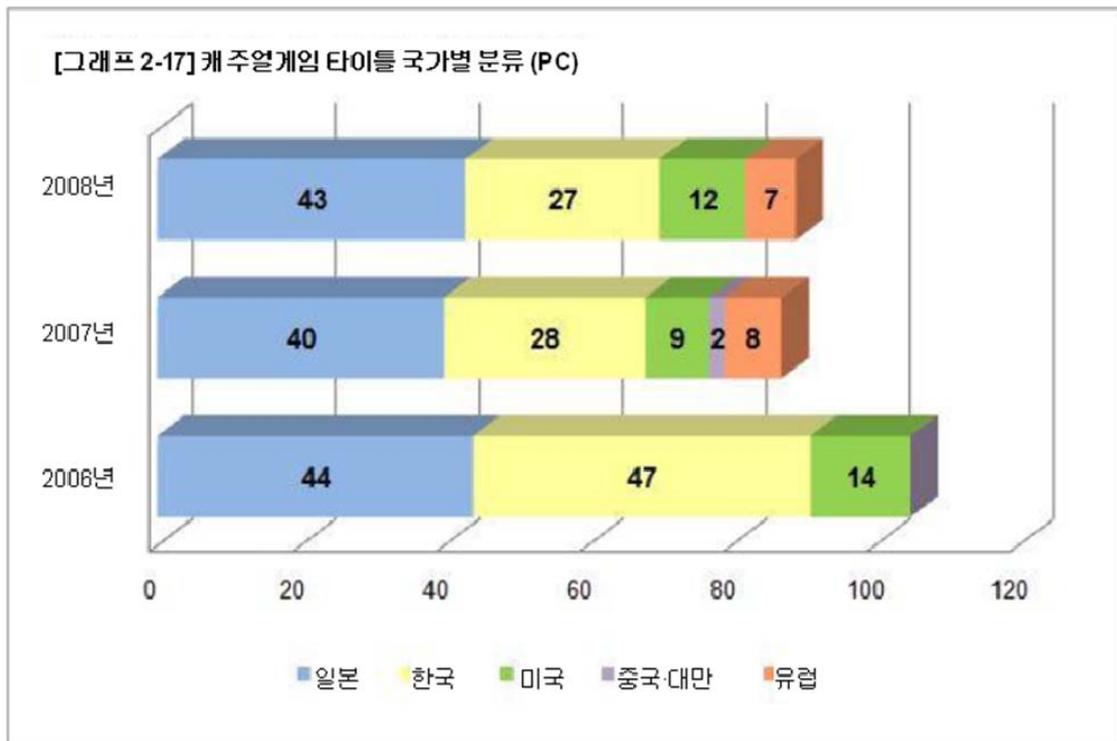
기타 국가의 MMO 타이틀은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7년과 동일한 추세에 있다.

**[표 2-16] 캐주얼게임 타이틀 국가별 분류**

	2008년 서비스제공 타이틀		
	2008년 신규	2008년 연속	
일본	13	30	43
한국	7	20	27
미국	4	8	12
중국·대만	0	0	0
유럽	1	6	7
합계	25	64	89

[표 2-17] 캐주얼게임 타이틀 국가별 분류추이 (PC)

	2006년	2007년	2008년
일본	44	48	<b>43</b>
한국	47	27	<b>27</b>
미국	14	38	<b>12</b>
중국·대만	0	2	<b>0</b>
유럽	-	14	<b>7</b>
합계	105	129	<b>89</b>



2007년에는 온라인게임타이틀이 대부분 서비스가 종료 되었으나 그 대부분이 캐주얼 게임이었다. 특히 한국 타이틀의 감소가 두드러지며, 일본 타이틀의 경우, 카드게임, 마작 등과 같은 장르 타이틀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해당 장르가 일본인의 취향에 맞기 때문에 2007년에 감소된 타이틀은 적었으며 2008년에는 미미하나마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2008년에 서비스된 일본 타이틀은 전체 타이틀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나 캐주얼게임 전체로 보자면 2007년, 2008년 모두 90 타이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어된다. 서비스된 캐주얼게임은 일본의 타이틀이 37%, 미국 타이틀이 29%이다.

## (8) 서비스 타이틀의 라이선서 국가별 분류와 추이

[표 2-18] 온라인게임 타이틀의 라이선서 국가별 분류

국가별	2008년 서비스제공 타이틀		
	2008년 신규	2008년 연속	
일본	127	97	<b>224</b>
한국	25	81	<b>106</b>
미국	122	39	<b>161</b>
중국·대만	4	12	<b>16</b>
유럽	1	7	<b>8</b>
합계	279	236	<b>515</b>



일본 타이틀은 2007년 신규 서비스게임이 80 타이틀, 연속서비스게임이 126 타이틀이었다. 2008년에는 신규와 연속타이틀 비율이 역전되어 신규서비스게임이 127 타이틀, 연속서비스게임이 97 타이틀이었다. 마찬가지로 미국 타이틀도 2007년에는 신규서비스게임이 73 타이틀, 연속서비스게임이 80 타이틀이었으나 2008년에는 신규서비스게임이 120 타이틀, 연속서비스게임이 41 타이틀이었다. 그 원인은 콘솔게임의 신규서비스게임이 증가한 점, Xbox 및 플레이스테이션 2의 타이틀 중 서비스가 종료된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표 2-19] 온라인게임 타이틀의 라이선서 국가별 분류의 추이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일본	81	141	184	206	224
한국	43	69	108	102	106
미국	59	94	163	153	161
중국·대만	4	4	8	18	16
유럽	-	-	-	16	8
합계		308	463	495	515

※ 2006년 이전 조사에서 유럽의 타이틀은 소수이었기 때문에 미국에 포함시킴



콘솔게임과 PC 게임을 합한 일본의 타이틀은 콘솔 타이틀 증가도 한 몫 하여 2004년 조사 개시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 미국 타이틀도 같은 이유에 의해 2008년 증가로 전환되었다.

한국 타이틀의 경우 모든 PC 타이틀이 2007년에는 감소했으나 2008년에는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중국, 대만 타이틀도 모든 PC 타이틀이 2007년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08년에는 감소로 전환되었으며 그 원인은 중국 타이틀에 의한 부분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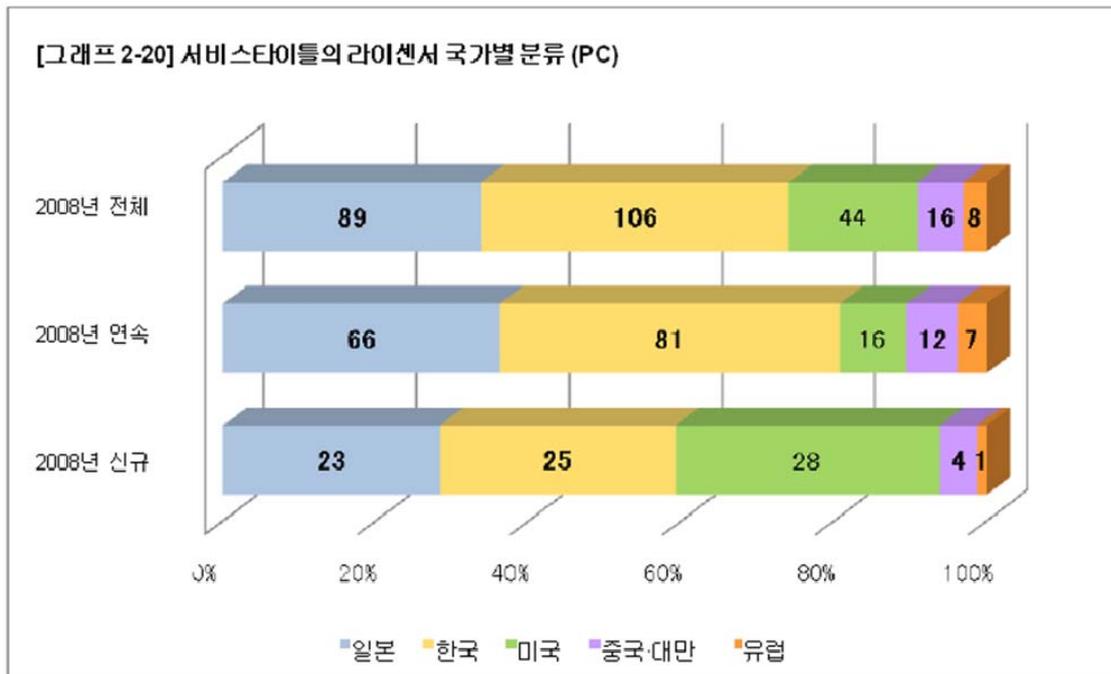
유럽 타이틀은 PC와 콘솔 타이틀 감소에 의해 2008년에는 2007년 대비 반으로 줄어들었다.

## (9) 서비스 타이틀의 라이선서 국가별 분류와 추이(PC 게임)

[표 2-20] 온라인게임 타이틀의 라이선서 국가별 분류(PC)

국가별	2008년(PC) 서비스제공 타이틀		
	2008년 신규	2008년 연속	
일본	23	66	<b>89</b>
한국	25	81	<b>106</b>
미국	28	16	<b>44</b>
중국·대만	4	12	<b>16</b>
유럽	1	7	<b>8</b>
합계	81	182	<b>263</b>

※ 포털사이트 8 타이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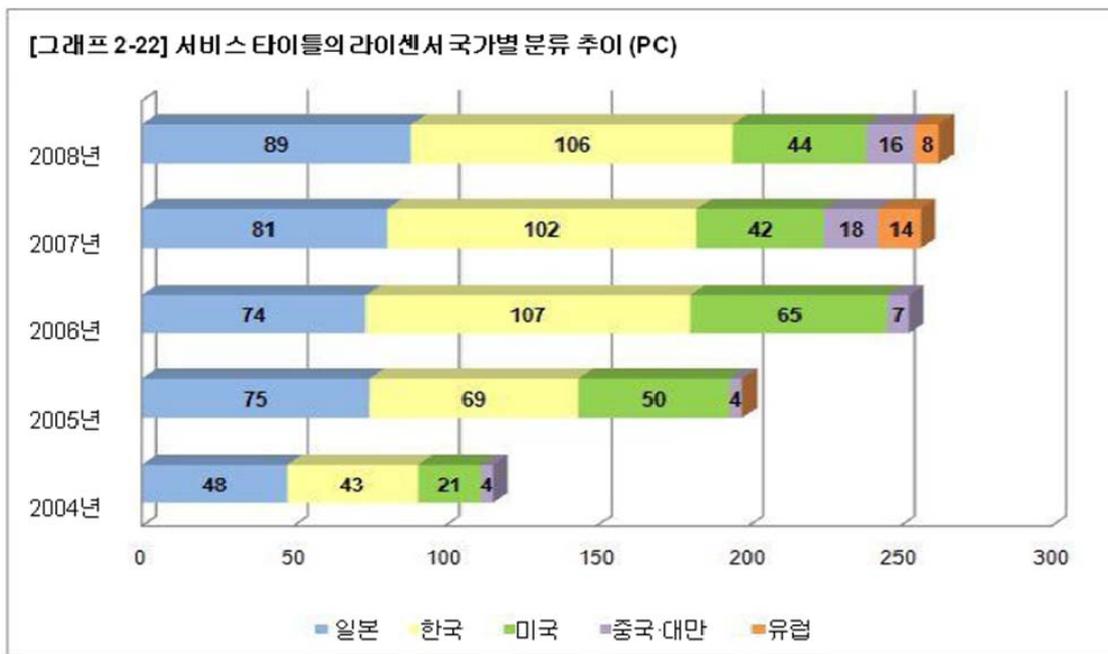
일본과 한국 타이틀의 경우 2007년, 2008년 신규 및 연속 서비스 타이틀 비율에 거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연속타이틀이 유저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2007년 미국의 신규 서비스 게임은 7 타이틀, 연속 서비스 게임은 35 타이틀이었으나 2008년에는 신규서비스게임이 28 타이틀, 연속서비스게임이 16 타이틀이었다. 미국의 타이틀의 대부분이 패키지 판매 타이틀이기 때문에 판매 부진이 서비스 종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표 2-21] 온라인게임 타이틀의 라이선서 국가별 분류 추이(PC)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일본	48	75	74	81	89
한국	43	69	107	102	106
미국	21	50	65	42	44
중국·대만	4	4	7	18	16
유럽	-	-	-	14	8
합계		198	253	257	263

※ 포털사이트는 제외



일본 국산 PC 온라인게임 타이틀은 2004년부터 2005년에 걸쳐 156% 증가했으나 2005년부터 2006년에 걸쳐 99%로 감소, 이후 2006년부터 2007년에 걸쳐서 109%, 2007년부터 2008년에 걸쳐 110%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참고로 2008년 서비스된 일본 국산 타이틀은 PC 온라인 타이틀 중 3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한국 타이틀은 2004년부터 2005년에 걸쳐서 160%, 2005년부터 2006년에 걸쳐 155% 증가했으나 2006년부터 2007년에 걸쳐 95%로 감소했다. 그러나 2008년에는 전년대비 104%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또한 중국, 대만 타이틀은 타이틀 수는 적으나 2005년부터 2006년에 걸쳐서 175%, 2006년부터 2007년에 걸쳐 257%로 매년 증가해 왔으나 2008년에는 전년대비 89%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대만의 많은 타이틀이 2008년 꾸준히 매출을 늘리고 있다. 참고로 매출을 늘리고 있는 중국 타이틀은 1개 타이틀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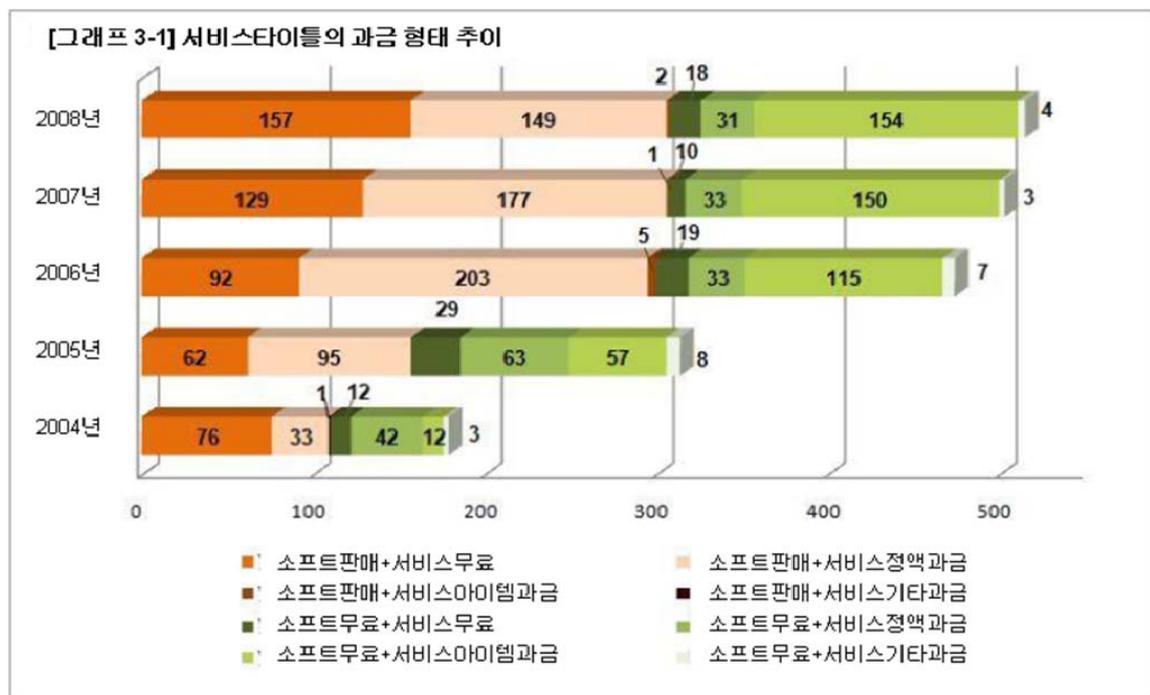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미국타이틀은 대부분이 패키지판매 타이틀로 온라인상에서 유저 간 매칭시켜 단순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타입이 대부분이다.

### 3. 온라인게임 비즈니스모델에 대해서

#### (1) 서비스타이틀의 비즈니스모델 분류와 추이

[표 3-1] 서비스타이틀의 과금(課金)형태 추이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소프트판매+서비스무료	76	62	92	129	157
소프트판매+서비스정액과금	33	95	203	177	149
소프트판매+서비스아이템과금	0	0	5	1	2
소프트판매+서비스기타과금	1	0	0	0	0
소프트무료+서비스무료	12	29	19	10	18
소프트무료+서비스정액과금	42	63	33	33	31
소프트무료+서비스아이템과금	12	57	115	150	154
소프트무료+서비스기타과금	3	8	7	3	4
합계	179	314	474	503	515



2008년 온라인게임 전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게임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그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하는 게임이 30%, 게임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서비스를 정액과금하는 게임의 전체 29%였다. 전자의 경우 2007년에 비해 4%증가했으며 후자는 6%감소했다.

그 이유는 서비스가 무료인 콘솔 타이틀 증가와 패키지 판매 PC 게임 서비스 무료화이다.

패키지 판매 PC 타이틀은 대부분이 온라인 호환 콘솔게임과 마찬가지로 소수 플레이어 간 매칭 기능과 같은 온라인 모드를 탑재하고 있으나 MMO 등 다수 참가형 PC 온라인 게임에 비해 서비스가 단순하기 때문에 유저들이 그 서비스의 가치를 유료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분에 의해 무료화가 촉진된 것으로 여겨진다.

상기와 같은 패키지 판매타이틀에는 서비스 무료, 서비스 정액과금, 서비스 아이템 과금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 있으며 온라인 게임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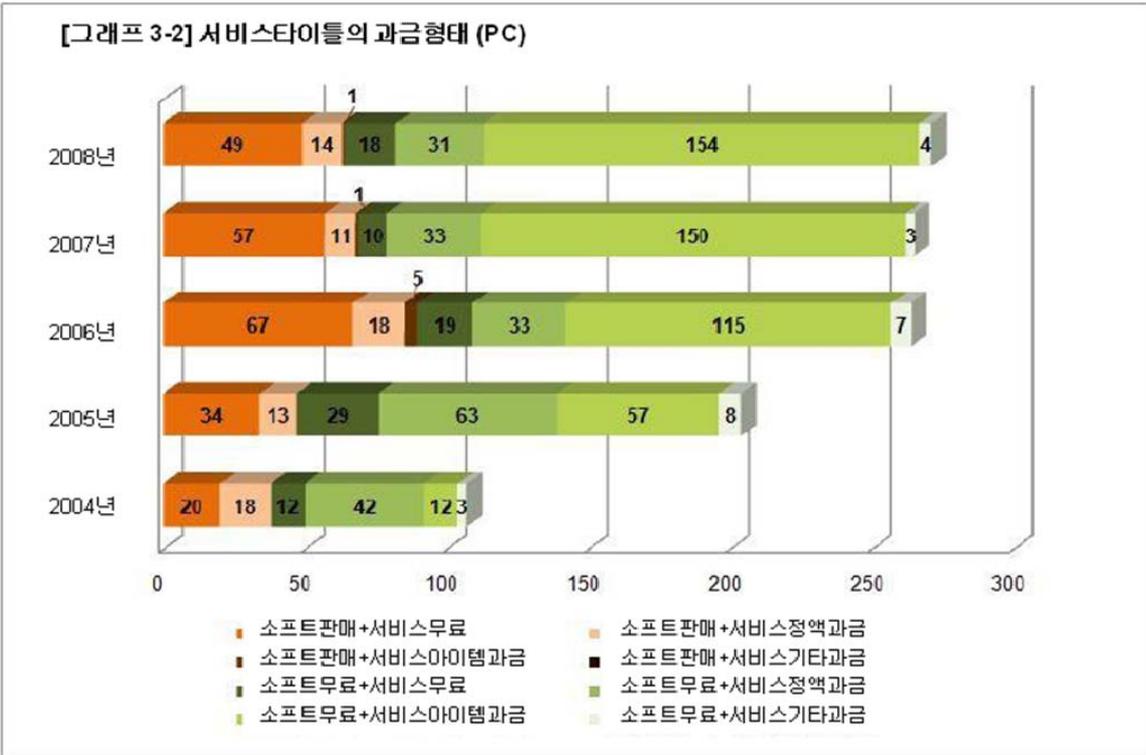
PC 온라인 게임의 주류인 소프트웨어 무료+서비스아이템 과금과 같은 모델은 PC와 콘솔을 포함한 전체 타이틀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7년과 동일한 비율이다.

또한 2008년 아이템과금 모델에는 콘솔타이틀이 포함된다.

## (2) 서비스타이틀의 비즈니스 모델 분류와 추이(PC 게임)

[표 3-2] 서비스타이틀의 과금형태 추이(PC)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소프트판매+서비스무료	20	34	67	57	49
소프트판매+서비스정액과금	18	13	18	11	14
소프트판매+서비스아이템과금	0	0	5	1	1
소프트판매+서비스기타과금	0	0	0	0	0
소프트무료+서비스무료	12	29	19	10	18
소프트무료+서비스정액과금	42	63	33	33	31
소프트무료+서비스아이템과금	12	57	115	150	154
소프트무료+서비스기타과금	3	8	7	3	4
합계	107	204	264	265	271



PC 온라인 게임상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2006년 이후 ‘소프트웨어무료+아이템과금’ 서비스이다. 이 모델의 타이틀 유저들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으나 게임 중 이용 가능한 부가가치 있는 서비스 및 디지털 데이터(무기, 방어기구, 장신구, 스킬 등의 아이템) 이용 시, 그 때마다 이용요금을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이 모델의 타이틀은 2005년에는 전년대비 475%, 2006년에는 전년대비 202%, 2007년에는 전년대비 130%로 증가했으며 2008년에는 전년대비 103%가 되었다.

한편 2005년까지 PC 게임의 주류를 이루었던 ‘소프트웨어무료 + 서비스정액과금’ 서비스는 2006년 전년대비 52%, 2007년 전년대비 100%, 2008년 전년대비 94%의 추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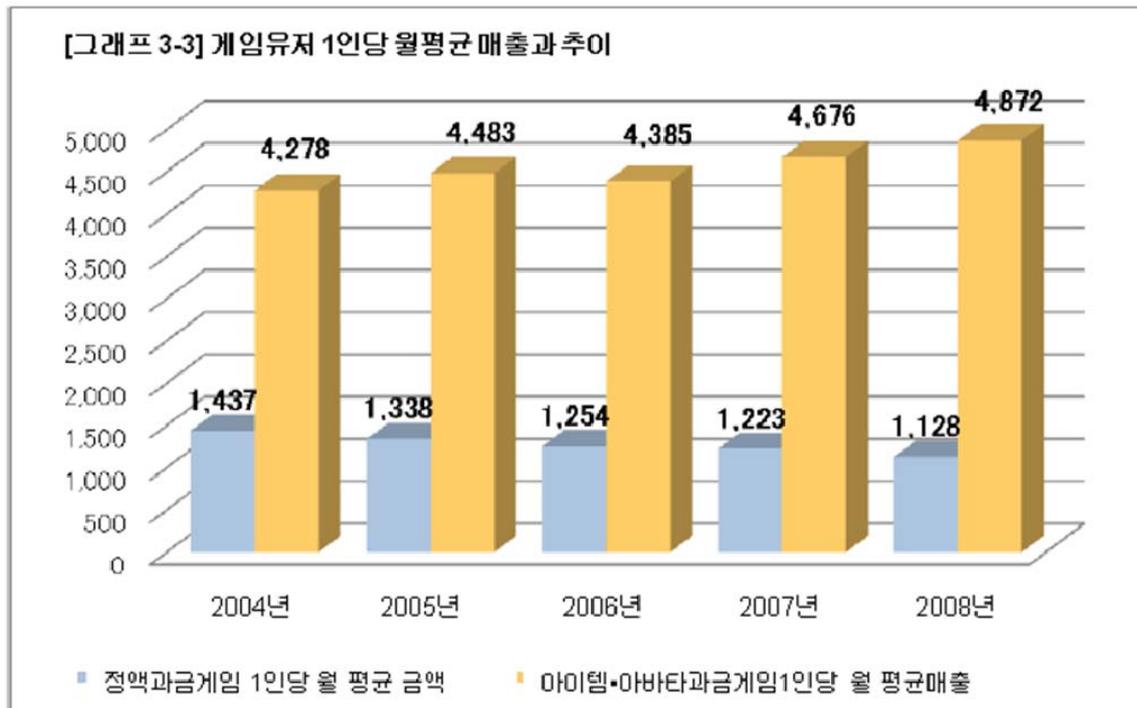
정액과금 타이틀 게임 중에는 아이템 과금이나 충전식 과금의 시스템을 추가한 하이브리드 (Hybrid)형 모델로 옮겨가고 있는 타이틀도 있으나 대부분은 베타 버전 타이틀이다.

### (3) 게임유저 1인당 월평균 매출과 추이

[표 3-3] 게임유저 1인당 월평균 매출과 추이

(단위: 엔)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정액과금게임 1인당 월 평균 금액	1,437	1,338	1,254	1,223	1,128
아이템·아바타과금게임 1인당 월평균 매출	4,278	4,483	4,385	4,676	4,8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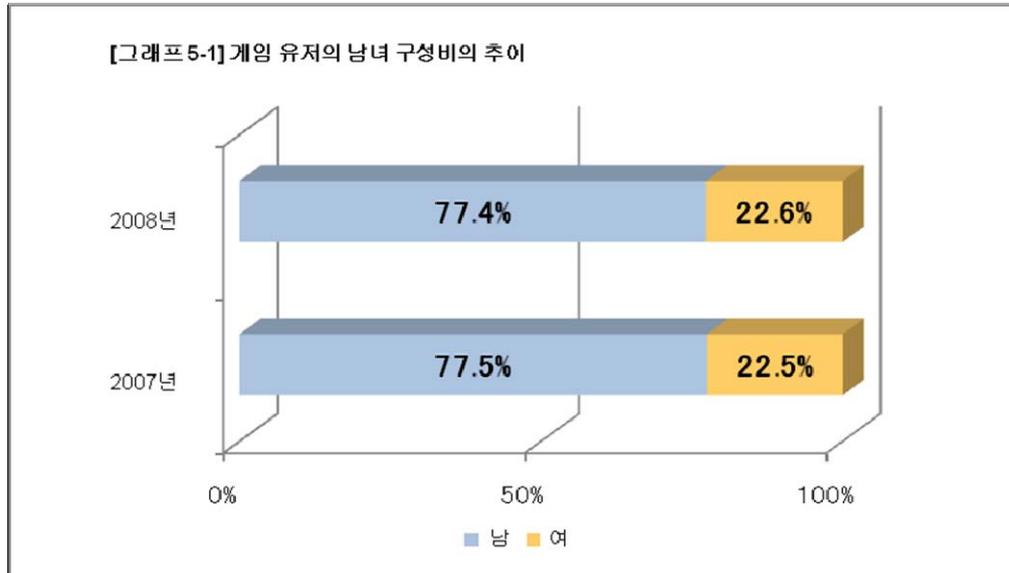
PC 게임 중 정액과금 서비스 타이틀의 유저 1인당 월평균 매출은 2008년 1,128 엔이었다.

2004년부터 2005년에 걸쳐서 93%, 2005년부터 2006년에 걸쳐서 94%, 2006년부터 2007년에 걸쳐서 98%로 감소세를 보였으며 2007년부터 2008년에 걸쳐 92%로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2007년에 이어 PC 캐주얼게임 및 콘솔게임 타이틀은 낮은 요금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PC 게임 중 아이템 과금 서비스 타이틀의 유저 1인당 월평균 매출은 2004년부터 2005년에 걸쳐 105%로 증가, 2005년부터 2006년에 걸쳐 98%로 감소하는 추이였으나, 2006년부터 2007년에 걸쳐서 107%, 2007년부터 2008년에 걸쳐 104% 증가했다. 2008년 월평균매출이 감소한 것은 타이틀 수의 급증에 따라 유저가 플레이하는 게임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나, 서비스 타이틀 재편 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 유저 1인당 매출은 점차 5,000 엔대에 가까워지고 있다. 또한 2008년 시장의 토픽이었던 콘솔게임기 상의 아이템과금 모델 타이틀 등장을 이유로 꼽을 수 있다.

## 5. 온라인게임 유저에 대해서

### (1) 게임 유저의 남녀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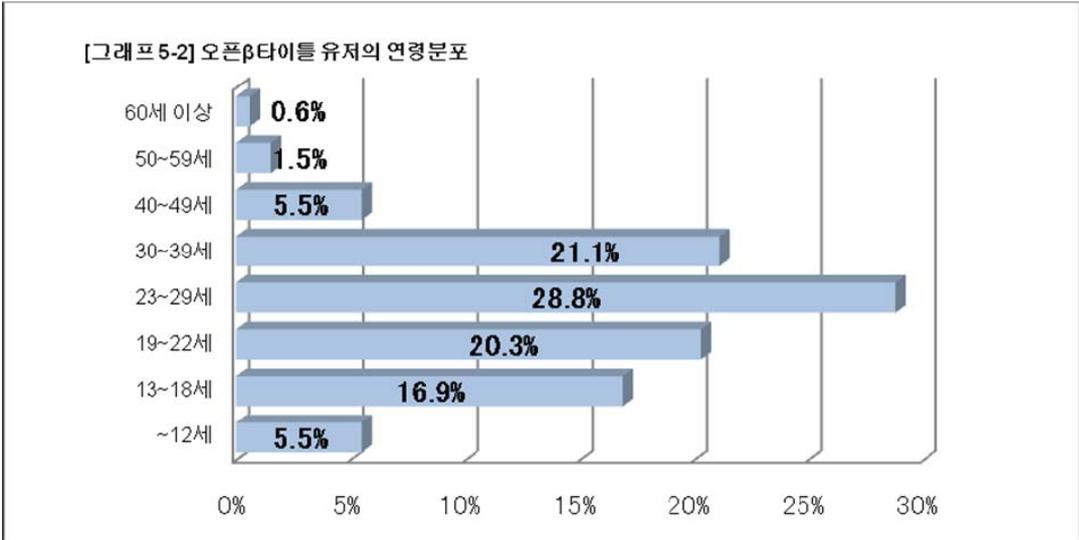


작년에 이어 온라인 게임 유저에 대한 남녀 구성비율을 조사한 결과, 적은 수치이지만 여성 유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유저의 대부분이 남성임에는 변함이 없다.

### (2) 오픈 β 타이틀 유저의 프로필 (연령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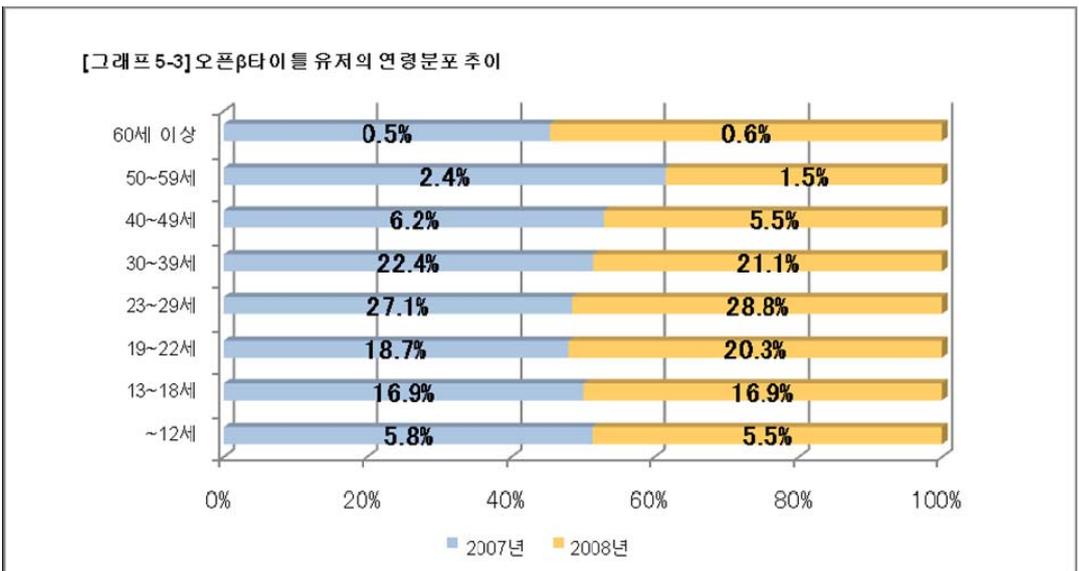
**[표 5-2] 오픈 β 타이틀 유저의 연령분포**

~12 세	5.5%
13~18 세	16.9%
19~22 세	20.3%
23~29 세	28.8%
30~39 세	21.1%
40~49 세	5.5%
50~59 세	1.5%
60 세 이상	0.6%



**[표 5-3] 오픈 β 타이틀 유저의 연령분포 추이**

	2007 년	2008 년
~12 세	5.8%	<b>5.5%</b>
13~18 세	16.9%	<b>16.9%</b>
19~22 세	18.7%	<b>20.3%</b>
23~29 세	27.1%	<b>28.8%</b>
30~39 세	22.4%	<b>21.1%</b>
40~49 세	6.2%	<b>5.5%</b>
50~59 세	2.4%	<b>1.5%</b>
60 세 이상	0.5%	<b>0.6%</b>



본 시장통계조사는 2004년부터 조사를 실시한 것인데, 의견청취 및 설문조사에 관해서 지금까지 샘플 취득이 5사(社)에 미치지 않는 경우는, 그 결과를 조사결과로 공표하지 않았었다. 유저 프로파일은 회사마다 연령분포가 틀리기 때문에 2006년까지는 제공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었다. 데이터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007년 조사 이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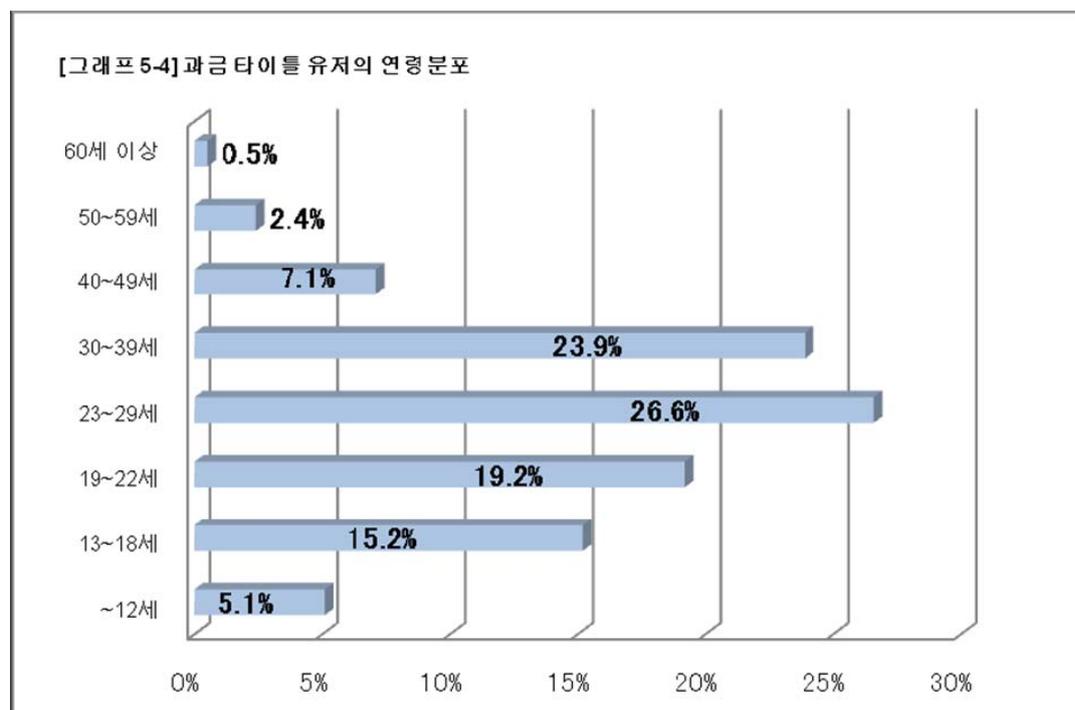
2007년과 2008년은 동일하게 가장 높은 층이 23~39세 유저층이었고, 그 다음으로 많은 30~39세 유저층을 포함한 20대~30대의 유저는 β 서비스 유저 전체의 49.9%를 차지하였다.

2008년 β 서비스 유저에서 19~22세 유저층이 전년 대비 1.6% 증가한 것이 특징적이다.

### (3) 과금 타이틀 유저의 프로파일(연령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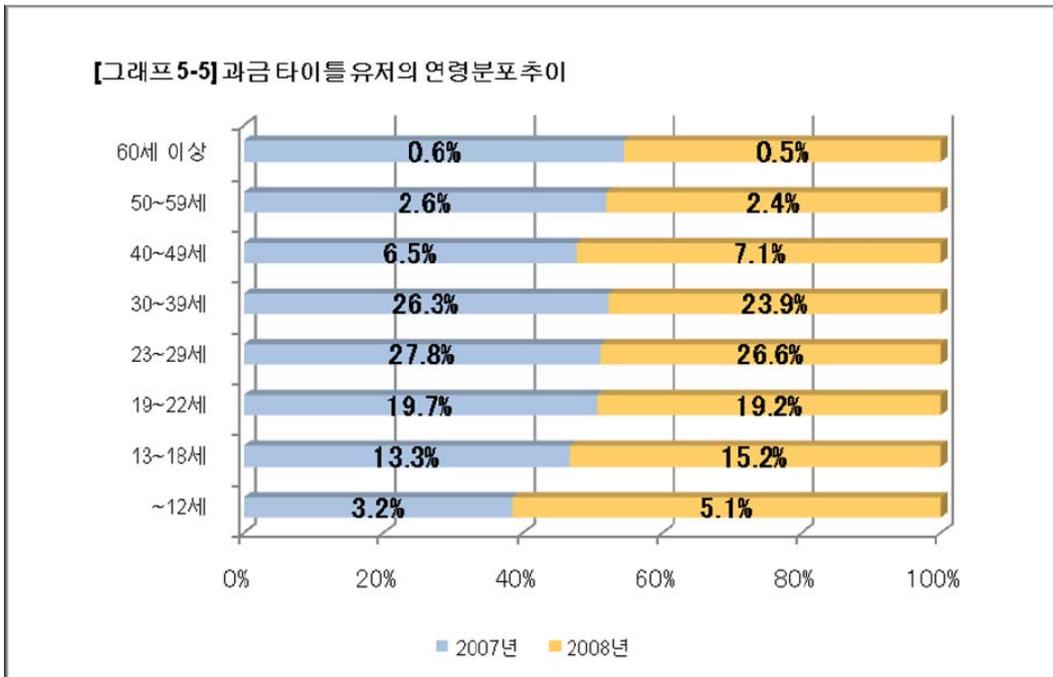
[표 5-4] 과금 타이틀 유저의 연령분포

~12 세	5.1%
13~18 세	15.2%
19~22 세	19.2%
23~29 세	26.6%
30~39 세	23.9%
40~49 세	7.1%
50~59 세	2.4%
60 세 이상	0.5%



[표 5-5] 과금 타이틀 유저의 연령분포 추이

	2007년	2008년
~12세	3.2%	5.1%
13~18세	13.3%	15.2%
19~22세	19.7%	19.2%
23~29세	27.8%	26.6%
30~39세	26.3%	23.9%
40~49세	6.5%	7.1%
50~59세	2.6%	2.4%
60세 이상	0.6%	0.5%



β 서비스 유저와 같이 2007년, 2008년에 가장 많은 것이 23~29세 유저층을 비롯하여 그 다음으로 많은 30~39세 유저층을 포함하여 20대~30대 유저층이며, 이들 연령층은 전체의 50.5%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 54.1%와 비교해 볼 때 조금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한편, 2008년 과금 유저에 대하여 13~18세 및 12세 이하의 유저층이 전년 대비 1.9% 증가하고 있다. 또한 40~49세 유저층도 전년 대비 0.6%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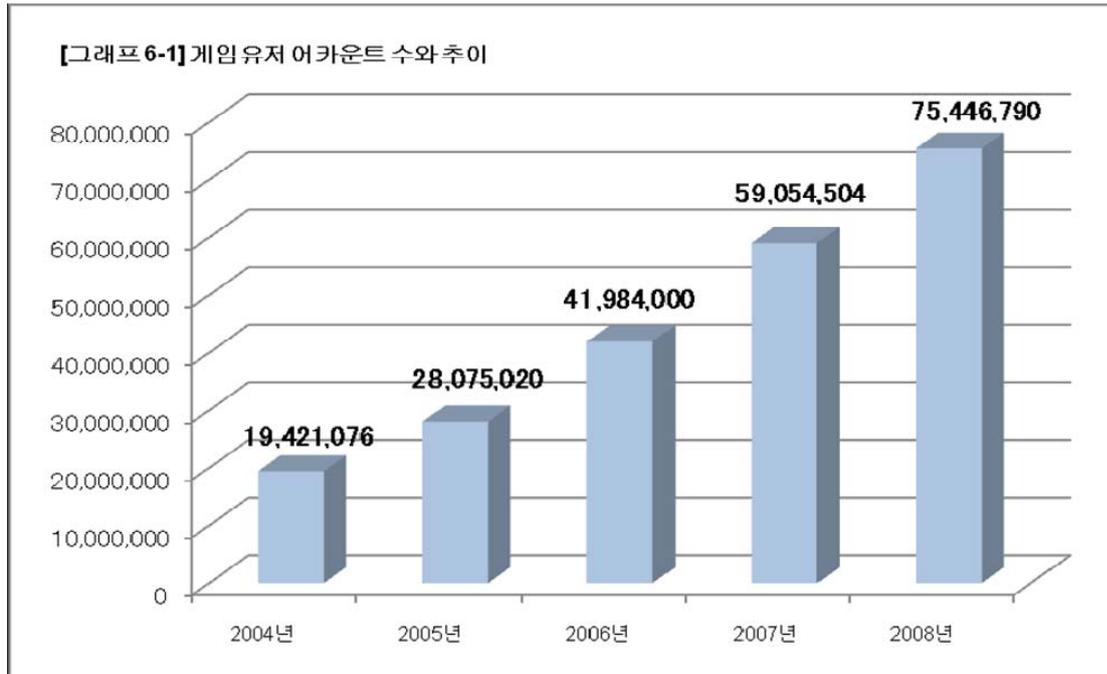
이는 아마도 과금 유저가 연령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6. 온라인게임 시장에 대해서

### (1) 게임유저 어카운트 수와 추이

[표 6-1] 게임유저 어카운트 수와 추이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어카운트	19,421,076	28,075,020	41,984,000	59,054,504	75,446,7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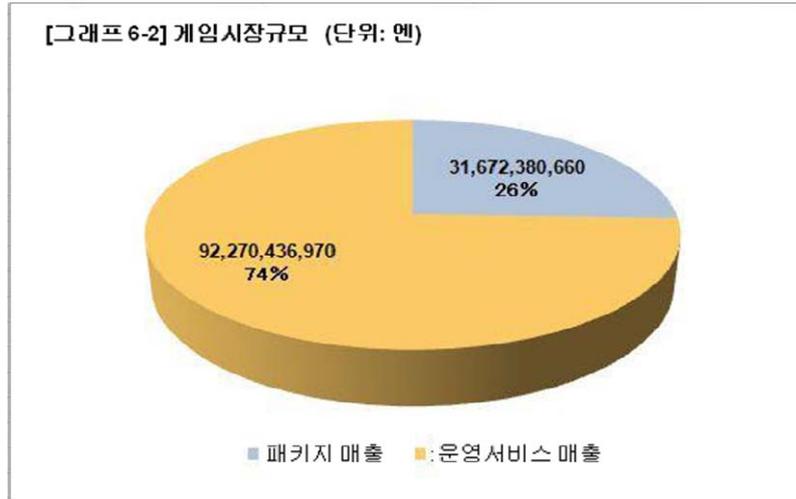
JOGA 는 전신이었던 온라인 게임 포럼 때부터 유저 어카운트를 조사해 온 결과, 2004 년 유저 카운트 수는 약 1,942 만이었다. 그 후인 2005 년에는 약 2,808 만, 2006 년에 약 4,918 만, 2007 년 약 5,905 만, 그리고 2008 년에는 약 7,545 만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 증가율은 2004 년부터 2005 년에 걸쳐 145%, 2005 년부터 2006 년에 걸쳐 150%, 2006 년부터 2007 년에 걸쳐 141%, 2007 년부터 2008 년에 걸쳐 128%로 2006 년을 피크로 하여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이다. 유저 어카운트 중에는 더블 어카운트 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 그대로가 유저 총수를 나타내지는 않으나, 증가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 (2) 게임시장규모와 추이

[표 6-2] 게임시장규모와 추이 (단위: 엔)

	2008 년
패키지매출	31,672,380,660
운영서비스매출	92,270,436,970
합계	<b>123,942,817,630</b>



2008 년 온라인게임 시장규모는 1,239 억 4,281 만 7,630 엔이었다.

2007 년에 비하여 111%가 증가하였다. 그 원인으로 온라인 게임 사업자 수가 2007 년부터 2008 년에 걸쳐 114 사에서 126 사로 증가하였고, 타이틀이 증가로 변한 것, 유저의 니즈에 맞춘 신규 타이틀에 대한 서비스의 개시, 유저 1 사람당 매월 아이템과금 매출이 증가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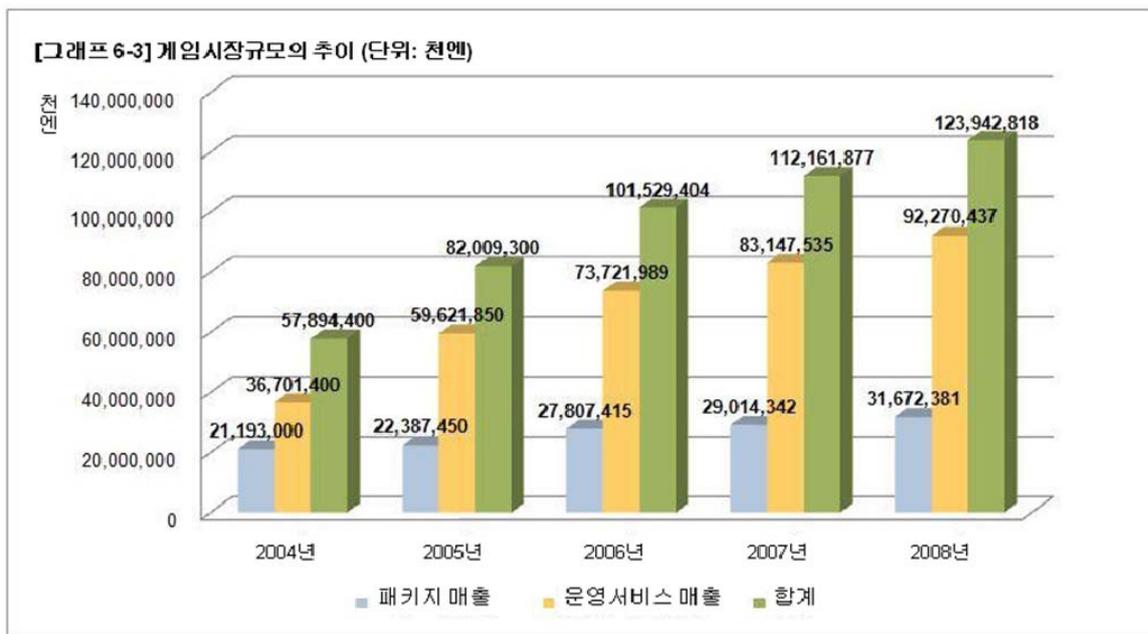
사업이 계속가능한 레벨의 유저를 확보한 온라인 게임 타이틀의 라이프 사이클은 약 3~4 년정도로, 그 후의 매출이 하강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2002 년~2003 년에 걸쳐 성립된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기존 타이틀과 신규 타이틀의 교체가 2007 년부터 2008 년에 걸쳐 표면화 된 것으로 해석된다.

### (3) 게임규모와 추이(패키지 매출과 게임서비스 매출)

[표 6-3] 게임시장규모의 추이

(단위: 엔)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전년대비
패키지 매출	21,193,000,000	22,387,450,000	27,807,415,000	29,014,342,290	<b>31,672,380,660</b>	109.1%
운영 서비스 매출	36,701,400,000	59,621,850,000	73,721,989,000	83,147,535,050	<b>92,270,436,970</b>	110.9%
합계	57,894,400,000	82,009,300,000	101,529,404,000	112,161,877,340	<b>123,942,817,630</b>	1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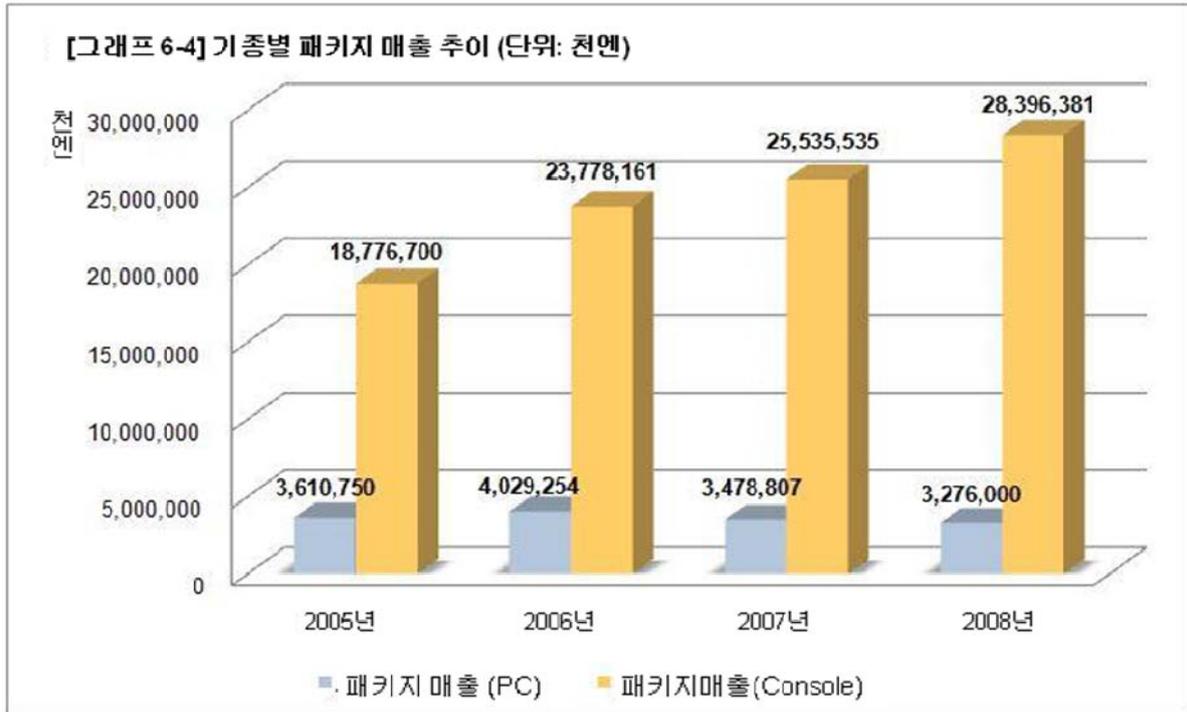


온라인 게임 시장규모는 2004년부터 2005년에 걸쳐 138%, 2005년부터 2006년에 걸쳐 124%, 2006년부터 2007년에 걸쳐 110%로 확대되고 있다. 2008년에는 전년도 대비 111%였기 때문에 전신인 온라인 게임 포럼을 포함하여 JOGA가 본격적인 시장조사를 개시한 이래, 시장은 세자리 수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성장률을 볼 때 2008년 후반부터 세계적인 규모의 불황 여파를 거의 받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아마도 온라인 게임이 패키지 판매모델도, 광고모델도 아니며, 수탁모델도 아닌 브로드 밴드시대에 생겨난 새로운 콘텐츠 서비스 모델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6-4] 기종별 패키지 매출 추이

(단위: 엔)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전년대비
패키지매출(PC)	3,610,750,000	4,029,254,000	3,478,807,480	<b>3,276,000,000</b>	94%
패키지매출 (Console)	18,776,700,000	23,778,161,000	25,535,534,810	<b>28,396,380,660</b>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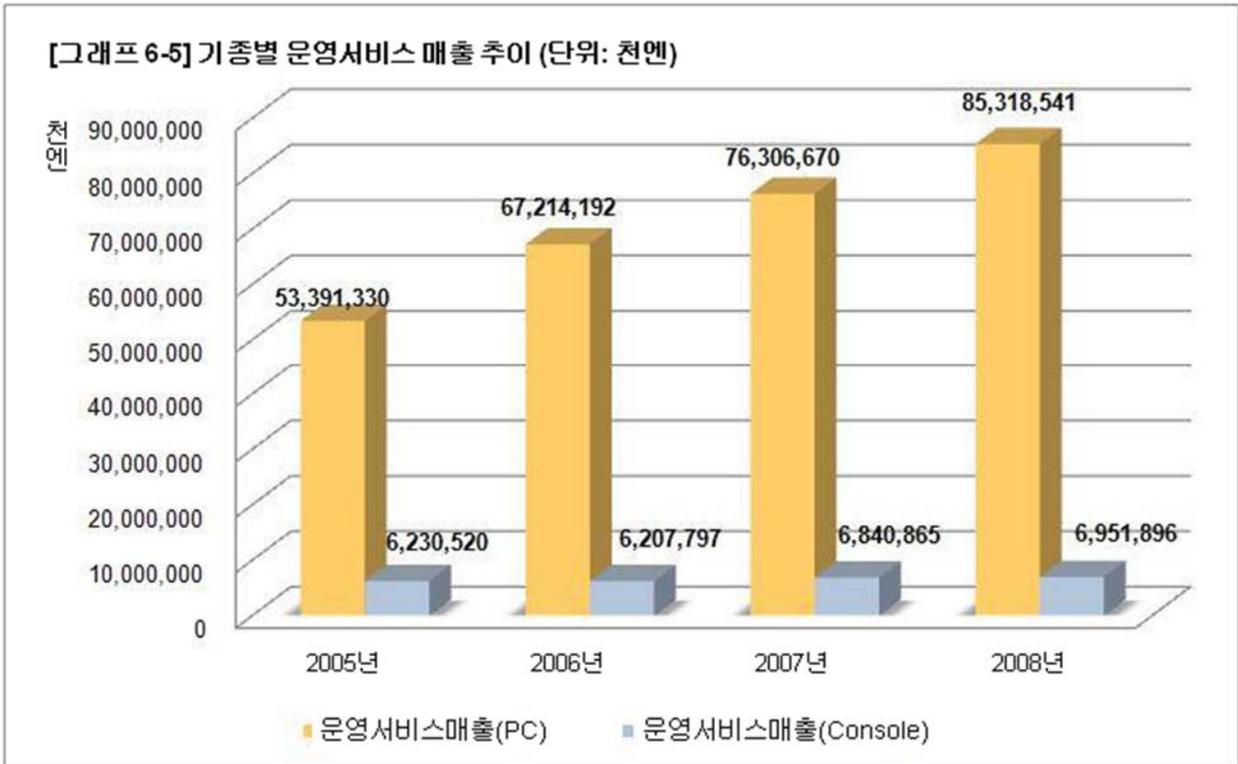


패키지 소프트 매출은 PC 게임 타이틀에 있어서 2007년에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무료로 게임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의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씩 일반화 되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콘솔 게임기의 온라인 대응 타이틀은 Xbox 360, 플레이스테이션 3의 타이틀 수 증가에 따라 매출도 증가 하고 있다. 그러나 1 타이틀당 평균 판매수는 2007년과 비교하여 감소경향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출의 증가율은 111%정도이다.

[표 6-5] 기종별 운영서비스 매출 추이

(단위: 엔)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전년대비
운영서비스매출 (PC)	53,391,330,000	67,214,192,000	76,306,670,030	<b>85,318,50,930</b>	112%
운영서비스매출 (Console)	6,230,520,000	6,207,797,000	6,840,865,020	<b>6,951,896,040</b>	102%



운영 서비스 매출은 콘솔 게임기의 타이틀이 증가한 것과 비교해 볼 때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다. 그 원인으로 Xbox360 이외의 콘솔 게임 타이틀의 대부분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인 것과, 같은 패키지 판매의 PC 게임의 거의 대부분이 유저 사이를 인터넷 상에서 매칭시키는 간단한 온라인 모드 탑재 타이틀이기 때문에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게임시장 규모가 1,000 억엔을 돌파한 것은 2006 년이다. 그 후에도 시장은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2007 년에는 1,121 억엔으로, 게다가 2008 년에는 1,239 억의 시장규모가 되었다.

게임운영 서비스 매출 전체는 2008 년에 전년도 대비 112% 였지만, 그 내역을 보면 모든 온라인 게임회사가 매출을 증가시키고 있지는 않으며, 온라인 게임운영의 노하우를 축적한 기업의 매출 성장이 돋보이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회사의 이극분화는 2007 년에 이미 표면화 되고 있으며, 2008 년은 더욱 이러한 경향이 가속화 되고 있다.